

김정은 시대 북한 TV의 '청년' 형상화와 정치적 함의*

—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중앙TV 서사물을 중심으로

강민정**

1. 서론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 형상 TV 서사물 방영 현황
3. 김정은 시대 북한 TV 서사물의 청년 형상화 양상
 - 3-1. 정치적 기획으로의 청년 이상화
 - 3-2. 청년 정체성의 변화와 서사적 대응
4. 결론

국문요약

최근 청년중시사상을 강조하고 청년강국을 정책적 기치로 내세우며 김정은 정권은 청년정책을 이전 정권에서 보다 확대 및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TV미디어에도 적극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청년 이 형상화된 서사물들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치적 기획으로의 청년 이상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김정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강의전담조교수.

*** 이 연구는 필자의 2016년 통일부 신진연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김정은 시대 청년 정책 평가와 전망』의 일부 즉 3-(2)를 재구성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논의를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북문화예술 연구회 회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받았음을 밝히며 지면을 통해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은 시대의 역점사업에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이상화와 (2)현대성의 표상과 선망의 대상으로의 청년 이상화 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김정은 정권은 이상적 청년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동 참여를 강요하였으며 현대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선취하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유사한 서사적 경험을 공유토록 하였다.

이후 김정은 시대 TV 서사물에 등장한 문제적 인물들을 통해 청년층의 사적 욕망을 확인하였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사회 진출 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사적 고민이 발현되고, 이것이 서사적 갈등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물론 서사의 말미에서 이러한 고민이나 갈등은 개연성과는 상관없이 공적 윤리로 포섭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는 북한 청년의 현실에 배태된 사적 욕망의 출현을 반증하는 동시에 이러한 청년들을 최대한 공적 윤리로 포섭하여 체제 순응형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강박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김정은 시대 청년층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이고 서사적 대응 방식을 확인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서사를 통해 청년층에게 경험이 전무한 과거 혁명전통에서 존재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성을 추구하는 양가적 마음가짐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를 봉합하기 위하여 서사에서는 서사적 결절의 흔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사적 결절을 통해 양가적이고 대립적인 정체성 사이에 머물러있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정체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서사를 통해 청년 주인공의 주변화를 서사물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이전 정권 보다 청년정책

을 보다 확대하며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특히 미디어를 통해 청년중시 사상을 적극 반영하며 마치 청년층을 사회적 주체로 호명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정책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청년층의 노동력 동원을 주창하던 일전의 청년정책 보다 강력하게 청년층의 정체성 변화를 우려하고 이를 통제 및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자구책에 가깝다고 보았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 청년정책, 청년중시정책, 조선중앙TV, 미디어 정치, 청년 이상화, 서사, 청년 세대, tv드라마)

1. 서론

북한에서 청년정책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삼대 정권을 통과하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이다. 청년정책의 효시인 김일성이 구현한 ‘청년동맹’, 김정일이 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지정한 ‘청년절’과 ‘청년중시사상’ 같은 정책은 북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청년정책은 청년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정치적 전략의 일종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적극 계승하고 보다 확대하여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절 행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3년 만에 청년대회가 공식적으로 부활하였다. 2016년 신년사 연설에서는 김정은이 “청년강국”¹⁾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북한 사회에서 청년

1)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은, 『신년사: 주체 105(2016)년 1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의 위상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에 관한 적극적 행보는 시시각각 북한 공식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대대적으로 홍보 및 선전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지도자 김정은의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미 태생적으로 ‘청년’이 지닌 ‘젊음’의 이미지를 부여 받았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은 청년대장으로 호명되었고, 정권 교체 직후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전유하며 ‘젊고 친근한 지도자’ 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청년동맹 출신을 당의 핵심 지도부로 임명해나가며 점진적으로 지도 세력의 세대교체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청년정책을 활성화하며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청년층’을 적극 호명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지도자로부터 획득한 ‘젊음’이나 ‘청년’의 상징을 정치적으로 적극 연계하여 활용해나가고 있다.²⁾

우선적으로 이는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 생전 후계자 시절에 청년조직을 활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준비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 정권도 집권 이후 청년층에게 충성과 지지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견고하게 만들어 체제 안정화를 추구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정권 교체에 따른 체제 안정화를 위하여 김정은 정권이 청년층을 보다 적극 호명하고 그들의 위상을 강조하는 데에는 청년

2) “우리시대가 더 젊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동지께서 나라를 이끄시는데 있다. 조선의 젊음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남다른 행운이다. 시대의 젊음은 나라의 발전면모에 비껴진다.”; 김정은 시대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의 ‘젊은 나이로 인하여 국가가 젊어졌고 이것이 바로 인민의 행운이라는 글이 수록되곤 한다. 송미란, 「(정론) 젊어지는 시대」, 『노동신문』, 2014년 5월 5일, 2면.

층을 정치적 후비 세력으로 구성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전후 북한 사회가 직면했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완료된 시점인 2012년은 북한에서 정한 강성대국 원년이었다. 이미 북한사회는 강성대국 원년에 맞추어 모든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정권 교체 이후 강성대국을 위하여 진행 중이던 사업 일부는 김정은 정권의 성과로 치환되었고 다른 일부는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전후로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동원될 대대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로 생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주는 '청년'을 향한 호명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건설 사업의 가시적 성과는 북한 사회의 대내외 선전용 이미지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비단 이는 현상적인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시각적 환경을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의 증가와 건물의 대형화 및 다양한 문화·유통 시설의 등장도 그러하다.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공간 현실에 놓인 청년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기치로 내세운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가시화된 스펙터클의 표상을 살아가는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삶이 강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³⁾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추구한 건물의 대형화 다양한 문화향유시설의 등장 등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미지의 변화는 현재

3)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시에 드러난 '사회주의문명국'의 함의」, 『인문학논총』 47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167쪽.

북한의 청년들에게 무언가 다른 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사회는 IT 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래문화 불법 유입의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내부 경제 순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장마당의 형성으로 읍지에서 사적 자산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영역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⁴⁾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환경을 살아가는 청년들이기에 현실 인식이나 그들의 정체성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지점을 지향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고는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적 요인은 김정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바로 김일성·김정일 시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청년정책을 전개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동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내 청년에 대한 적극적 호명은 청년층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응전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보충하여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사실 폐쇄적 사회 성격을 지닌 북한을 비롯하여 그 내부에 살아가는 북한 청년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직접 접촉이 어려운 이유로 연구적 제약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구 분야이다. 때문에 타자로써는 알아내기 힘든 북한 내부의 청년 현실을 상상의 영역을 통하여 나름 추론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는 실제 북한의 TV 서사물에 담긴 북한의 청년 형상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4) 강민정,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딜레마』, 『통일인문학』 64호,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5, 123쪽.

의 북한 현실을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북한 청년의 상황을 가늠해볼 예정이다.⁵⁾ 그리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적극적 청년정책 행보와 미디어를 통한 청년정책의 확장'이라는 최근의 현상을 표층적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김정은 정권의 TV 서사물에 담긴 청년 형상화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 형상 TV 서사물 방영 현황

북한의 TV 서사물은 북한 지도체제의 선전·선동 도구인 동시에 인민들이 즐길 수 있을만한 오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양 기능을 담당하는 장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와 지침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수용자의 관심에 상응하는 인민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닐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TV 서사물이 북한사회의 총체적 단면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TV 서사물을 세부 장르로 구분하면 문학 편집물(시나 수필 등을 영상화한 작품), 공연 녹화본, TV드라마(TV영화, TV소설, TV극)⁶⁾로

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①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

② 전영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③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한국문화기술』 19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5.

6) 여기에서 TV영화, TV소설, TV극은 북한식 장르 표기로 남한식으로 하면 'TV드라마'라는 하나의 장르로 통합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본고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 형상이 담긴 서사적 특성을 두루 살피기 위하여 문학편집물 · 공연녹화본 · TV드라마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연구 시기의 경우, 김정은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로 한정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하여 직접적 통치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북한의 공식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제작 및 방영한 서사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때 김정은 시대 청년을 형상화한 작품만 다루기로 한다. 북한에서 청년의 연령대는 청년동맹의 가입 가능 여부로 결정된다. 때문에 청년동맹 가입 가능 기간인 만14세에서 만30세까지의 인물을 다루고 있는 TV서사물을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김정은 시대 청년 형상이 담긴 TV서사물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 방영 ‘청년’ 다룬 TV 서사물 현황(2012-2016)

문학 편집물	수필	땀방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2015	-
	시소개편집물	장쾌하다, 백두산영웅청년 신화의 메아리	2016	-
	서사시	백두산영웅청년신화- 이 서사시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게 드린다	2015	-
	장시	청년강국의 새 전설- 한동선	2015	
공연 녹화본	경희극	사랑	2012	-
	경희극	향기	2015	-
	경희극	백두의 청년들	2016	-
TV드라마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2012	2부
	텔레비죤극	기다리는 아버지	2013	2부
	텔레비죤극	소년탐구자들	2013	1부
	텔레비죤예술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014	1-3부
	텔레비죤극	표창	2015	1부
	텔레비죤극	귀중히 여기라	2016	1부

먼저 문학편집물은, 개별 수필이나 장시, 시 편집물, 서사시 등의 비교적 짧은 분량의 문학 작품을 영상 및 배경음악 과 결합하여 TV로 전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총 6편의 청년 관련 문학편집물이 방영되었는데, 이들 내용은 공통적으로 청년 돌격대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다룬다. 특히 청년 돌격대를 '청년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청년강국'을 이끌어 나갈 주체로 설정하며 그들에 대한 노골적 찬양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오래 전부터 북한 TV 방송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영상화하여 문학편집물로 재구성해오고 있다. 이때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학작품이 다수 영상화된 것은 2015년을 기점으로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청년'을 다룬 문학편집물이 제작 및 방영된 데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정책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가시화되고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를 통해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는 방법 중에 일환으로 기획되고 이것이 적극 수행된 결과로 보인다.



공연녹화본은 실제의 공연을 녹화하여 이를 파급력이 센 TV매체를 통해 인민들에게 보다 널리 전달하는 형태의 방송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연 녹화본은 공간적 제약을 지닌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TV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 일회성의 공연을 TV를 통해 녹화 후 반복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연녹화본은 순수 공연 때 보다 파급력이 뛰어난 선전선동의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을 형상화한 공연녹화본으로는 〈사랑〉, 〈향기〉, 〈백두의 청춘들〉 총 세 편을 들 수 있다. 〈사랑〉은 평양민속공원의 노동부원 청년들이, 〈백두의 청춘들〉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에 복무하는 돌격대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향기〉의 경우 지방의 한 어촌으로 배경으로 하며 주인공 강선기가 인민군대 수산사업 소처럼 인민군대의 수산열풍을 따라 배우려는 청년으로 형상화되며 그가 중심 서사를 이끈다.

	
<p>〈그림 3〉 공연녹화본: 경희극 〈사랑〉, 2012년 작 및 2012년 TV방영</p>	<p>〈그림 4〉 공연녹화본: 경희극 〈향기〉, 2015년 작 및 2015년 TV방영</p>
	
<p>〈그림 5〉 공연녹화본: 경희극 〈백두의 청춘들〉, 2016 작 및 2016년 TV방영</p>	

이때 〈사랑〉, 〈향기〉, 〈백두의 청춘들〉은 모두 경희극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북한에서 경희극은 “부정적 형상들을 가벼운 웃음을 통하여

비판 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인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된 희극 형태로 인민들을 교양하는 힘 있는 수단⁷⁾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지닌 장르이다. 즉 단선적인 서사 구성과 평면적 인물들로부터 파생되는 선명한 주제의식을 통해 비교적 당의 의도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장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연녹화본은 당이 요구하는 김정은 시대의 이상적 청년 모습을 경희극의 장르적 특성에 의하여 비교적 선명하게 반영하여 전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경희극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여 주인공을 청년으로 다루며 이상적인 청년상을 보여주는 서사 형태는 이전 정권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경희극들이 청년 주인공을 주로 항일혁명투사나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군 청년에 대한 형상화를 보여줬다면 이 시기에는 김정은 시대 대표 역점사업에서 복무하는 청년에 관한 형상화가 유독 많아진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TV드라마는 직설적 표현이 가능한 문학편집물이나 단선적 서사를 통해 선명한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공연 녹화물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TV드라마는 앞선 서사물들 보다 등장인물과 배경이 카메라를 통해 팝진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클로즈업, 다채로운 묘사 등으로 입체적 청년 형상화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청년 현실의 갈등이 보다 많이 함께 반영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7) 사회과학원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82쪽.

〈표 2〉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 청년 형상 TV드라마

유형	세부장르	제목	년도	주인공: 청년여부	번호
TV 드라마	텔레비존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2012	×	①
	텔레비존극	기다리는 아버지	2013	×	②
	텔레비존극	소년탐구자들	2013	△	③
	텔레비존예술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014	△	④
	텔레비존극	표창	2015	○	⑤
	텔레비존극	귀중히 여기라	2016	○	⑥

〈표 2〉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TV드라마 중 청년을 형상화하고 있는 TV드라마를 정리한 표이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 〈기다리는 아버지〉, 〈소년탐구자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표창〉, 〈귀중히 여기라〉가 이에 해당한다. ①,②의 경우 청년 등장인물은 주인공이 아니고 보조인물에 해당한다. 이 경우 둘 다 뛰어난 재능을 소유한 유아를 가르치는 유치부 교원, 그들의 부모로 설정되어 있다. ③의 경우 청년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중학교를 다니는 과학도들을 그린 TV드라마로 청년 주인공은 성년이 아닌 청소년에 가까운 청년들로 설정된다. ④의 경우 소학교의 축구단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로 소학교의 축구단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면서도 사실상 이들과 함께 축구 교육을 담당하는 청년 교원이 TV드라마의 중심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⑥의 경우 직접적으로 청년 주인공이 등장하는 TV드라마이다. 이들은 각각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청년 노동자와 청년 군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⑤,⑥은 2015년과 2016년 김정은 정권이 청년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청년정책을 보다 활성화한 시기에 등장한 TV드라마로 이때 김정은 시대의 청년 특징을 그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3. 김정은 시대 북한 TV 서사물의 청년 형상화 양상

김정은 정권은 2016년 6월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차지하는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을 창작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청년들은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의 창조자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 영화,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대로 담은 진실한 길동무를 기다리고 있다.”⁸⁾는 문학예술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써 앞으로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을 받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청년 묘사가 이루어지리라 전망할 수 있다.

때문에 본고가 다루고 있는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동안의 TV 서사물들 중에서 사실상 김정은 시대를 온전히 체화한 청년 주인공이나 김정은 시대를 대표 및 상징하는 청년 형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오히려 정권 교체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북한 청년들의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체제 안착 이후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주체로 ‘청년’을 적극 호명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북한 청년층에게 서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어떤 의무를 청년들에게 부여하려 하며 또 어떤 환상과 희망을 심어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TV 서사물의 청년 형상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선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후 서사 이면에 담겨진 북한 청년의 현

8) 립향, 『청년들은 새 영화를 기다린다』, 『조선예술』 2016년 6월호, 조선예술문학출판사, 2016, 65-66쪽.

실 문제와 연계하여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지금의 청년정책에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3-1. 정치적 기획으로의 청년 이상화

본래 북한문학예술은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공산주의인간 전형을 형상화하는 데 창작 목적을 둔다. 때문에 청년을 형상화한 TV 서사물을 통해 정치 기획으로의 이상적 청년상이 제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가 살펴본 TV 서사물에서도 공통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상이 쉽게 파악되었다. 물론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시대가 전유했거나 전유하려고 하는 시대적 특성이나 당대성이 이상적 청년상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1)김정은 시대의 역점사업에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이상화와 (2)현대성의 표상과 선망의 대상으로의 청년 이상화 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정리 가능하다.

먼저 김정은 시대의 역점사업에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이상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김정은 시대 역점사업에 투입된 청년들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학편집물의 경우 6편 모두가 김정은 시대의 역점 사업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청년 돌격대원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래 <그림 6>과 <그림 7>을 보면 문학편집물이 형상화하는 청년의 모습은 “물집이 터질 정도로” 일하고도 “누리는 것보다 바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매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상화된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산력을 증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돌격대를 김정은 시대를 빛낼 ‘영웅청년’으로 치켜세우고 작품의 제목들에서처럼 그들의 헌신적 삶을 ‘청년 신화’의 서사로 칭송하는 것이다.



공연 녹화본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김정은 시대 역점 사업이자 대규모기간사업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여된 청년 돌격대원들 주인공으로 하는 〈백두의 청춘들〉만 보아도 청년 돌격대원들이 건설장의 매우 열악한 환경에도 헌신을 다해 끝내 목표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정은 시대 관광자원을 목적으로 개장한 평양민속공원에 복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그들 앞에 놓인 업무적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을 넘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랑〉도 유사한 서사 전략을 취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어획 생산량 증가를 앞둔 수산사업소에 복무하는 청년의 헌신적 노력이 생산량 증대를 달성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을 다룬 〈향기〉도 그러하다. 즉 김정은 시대 역점 사업에 투입된 청년들을 역점 사업의 주역으로 즉 ‘청년영웅’으로 이상화하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공연에는 영사기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매우 핏진한 배경이 영사막을 통해 전달될 수 있게 된다.⁹⁾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녹화된 공연을 보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목격된다.

9) 장명철은 경희극 작품에서 영사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간 무대 위에서 창조하기 어려운 장면형상을 창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 분위기를 돌구어 줌으로써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을 보다 감명 깊게 형상할 수 있다고 논한다.; 장명철, 『영사화면의 효과적인 리용: 선군시대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4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2, 62-63쪽.

〈향기〉에서는 영사막을 통해 성난 바다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뛰어든 청년 주인공의 모습을 영사막에 띄워 보여준다. 이는 그의 어획 생산량에 대한 충만한 의지를 극대화하여 표현한다.¹⁰⁾ 즉 〈그림 8〉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도 불구하고 〈그림 9〉처럼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바다에 들어가 그물망을 걷어내는 강신기를 통해 생산력 증대를 이루려는 청년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백두의 청춘들〉에서도 청년 돌격대원들이 영하 30도의 얼음물에 들어가 뗏목을 고정하는 모습을 영사막을 통해 보여주며 청년들의 고된 노동이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청년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즉 매우 비정상적인 업무 현실을 타하기 보다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노동에 매진한다. 이와 같은 청년 형상화를 통해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임을 강조한다.

〈백두의 청춘들〉에서는 “우리가 10여년 세월을 객지의 혹한 속에서

10) 김미진은 이것이 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경희극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로 파악하며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기 위한 효과적 장치로 이해한다.; 김미진, 『김정은 시대 북한 경희극 분석』, 『동아연구』 34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60쪽.

고생하면서 물론 먹을 것도 그리웠고 잠자리도 그리웠지만 그보다 더 그리운 것은 시멘트 아니었습니까?”라며 지금 “내리는 눈이 모두 시멘트였다면 좋겠다”라는 대사를 던지는 한 청년 등장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눈 때문에 길이 없어져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발전소까지 어렵사리 도착하게 된 시멘트를 보며 그간 객지에서서 호한 속 고생을 모두 잊고 다시 전투적 과업을 이어나가 승리를 이루자며 기쁨에 울부짖는다.

사실 그의 대사에는 객지의 호한에서 고생하며 과업을 이어나가자니 먹을 것이 그립고 편한 잠자리가 그리운 청년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동시에 오랜 기간 객지 생활로 쌓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에 지속 노출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청년돌격대의 현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은 이러한 청년돌격대원처럼 역경을 감내할 줄 알고 고통을 기쁨으로 치환할 줄 아는 긍정성이 바로 김정은 시대가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덕목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 서사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역점 사업은 비정상적 노동 환경에 과한 업무량이 매일같이 존재하는 현실 공간임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는 주인공의 긍정성으로 청년영웅들이 노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청년 신화가 기록되어지는 아름답고 의미있는 공간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노동 현실을 찬양하는 청년 이상화는, 업무 현장에 함께 복무하는 ‘연인’ 사이의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오히려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을 그려내는 세 편의 공통된 공연녹화본 중심 서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은 평양민속공원에 일하는 민속공원 노동부원인 광남과 옥실이가, 〈향기〉는 어로공 선기와 혜연이가, 〈백두의 청춘들〉에서는 백두산영우청년발전소 건설 사업에 복무 중인 이옥철과 정성화, 강순호와 라순희가 각각의 연인 사이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뒷전으로 하고 일에 매달리며 때문에 결혼을 미루

는 선택을 하는 인물들이다. <백두의 청년들>에서는 급기야 당이 나서서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도맡는다는 내용이 등장하기까지 한다. 즉 사생활의 영위나 개인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접어둔 채 오로지 당과 지도자를 위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것에 자발적으로 주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상으로 제공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0〉</p> <p>부모의 반대로 개인 간의 ‘사랑’이 먼저인지 당의 ‘일이 먼저인지’ 기로에선 옥실과 광남의 모습을 그려낸 〈사랑〉</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1〉</p> <p>선기와 혜연이 수산열풍에 동참하고자 결혼을 미루기로 결심하고 누이에게 거짚으로 다리를 다쳐 결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 〈향기〉</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2〉</p> <p>발전소 건립을 목표 내 달성하기 위해 결혼식을 당에서 올려주겠다고 해도 결혼을 뒤로 미루고 일에 매진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백두의 청년들〉</p>	

물론 이러한 비정상적 청년 이상화 방식이 김정은 시대 TV 서사물에 서만 찾아지는 특수한 청년 형상화 방식은 아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북한문학예술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 이상화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이들 청년 이상화에 김정은 시대의 청년의 당대성

을 어떻게 입히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그간 보편화된 서사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보이게 하는가의 문제와 연계된다. 특히 이러한 당대성을 입히는 작업이 왜 이 시기 세편 모두 활용할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 '김정은 시대의 역점 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녹화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13〉과 〈그림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평양민속공원이라는 김정은 시대 역점 사업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때 서사는 극이 전개되는 내내 경희극 장르 특유의 경쾌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역점 사업의 현장은 청년들에게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노동력 착취의 현장이기 보다 경쾌하고 낭만적인 서사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진다. 즉 생산력 증대를 위해 희생과 고생만이 가득한 실제적 기억을 탈각시키고 이들 서사를 통해 청년신화가 이뤄지는 의미 있고 낭만적이고 상징적 공간으로 대체되어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은 역점 사업들은 서사적 경험으로 또 다른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경험의 공유는 김정은 시대만의 청년세대의 전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은 현대성의 표상을 지닌 이상적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이들은 현대성의 표상을 활용하여 청년을 이상화한다. 이를 통해 그

들을 다수의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주로 카메라 녹화로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TV드라마를 통해 이루어진다. TV드라마 속 이상적 청년들은 대개 과학에 능통하고 기기를 잘 다루며 업무적 능력이 뛰어난 도시 출신의 청년들로 그려진다. 즉 다양한 IT기기를 교육, 운동, 업무에 활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표상들이 바로 선망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TV드라마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김정은 시대 청년 형상화 TV 서사물의 현대성 표상 양상

제목	표상	관련 이미지
소년탐구자들	과학성 도시출신 청년 과학자	 <p>〈그림 15〉 청년주인공 발명 음파탐지기 기계</p>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과학성 IT기기사용 도시출신(평양) 청년 교원	 <p>〈그림 16〉 IT기기로 과학적 교육방법을 찾아 이를 교육하는 교원 선향(평양출신)</p>
표창	IT기기 도시출신(평양) 능력이 뛰어나 청년 인텔리를 꿈꾸는 청년노동자	 <p>〈그림 17〉 핸드폰으로 연애 중인 강리창</p>

<p>귀중히 여기라</p>	<p>과학성 도시출신(평양) 청년 엘리트(남) 청년 과학자(여)</p>	 <p>〈그림 18〉 평양 출신의 과학자(여)와 엘리트 군인(남)이 처음 인연을 맺는 평양 거리 장면</p>
----------------	---	--

〈소년탐구자들〉에는 과학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과학도들이 등장하며,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의 주인공 선향은 컴퓨터 기술을 도입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축구 교육 방법을 만들고 이로써 학생들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이른다. 〈표창〉에서는 주인공이 핸드폰으로 연애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그려지며 청년의 현대적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또한 〈귀중히 여기라〉의 여주인공은 평양 출신 과학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TV드라마 속 이상화된 주인공들은 대개 평양 출신 도시인이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부모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의 선향, 〈표창〉과 〈귀중히 여기라〉의 주인공 남녀들도 마찬가지로 평양 출신이다. 서사에서 이들 청년들은 대개 자진하여 지방행을 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도시와 지방 사이의 평준화를 지향한다는 북한사회 내부에 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소학교의 운동장〉에서는 선향이 시골을 내려가는 사건으로 서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선택을 “패기 없는 선택”이자 노력을 통해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도시로부터 “막무가내 도피”했다며 그녀를 오해한다. 이에 선향은 깨끗하게 내려가 시골 학생들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원이 되어 전념한다. 〈귀중히 여기라〉는 카메라가 유려하게 평양의 도시 전경을 담아낸다. 이때 고층빌딩, 지

하철, 핸드폰을 들고 걸어 다니는 바쁜 사람들의 모습, 자동차 경적 소리 등이 이 장면에 담긴다. 따라서 평양에 휴가 나온 남자 엘리트 군인이 이사를 간 아파트를 찾고자 길을 물어보면서 여자 과학자와 이후 먼 시골에 가게 되어 재회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청년들의 자진적 지방행은 TV드라마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그만큼 현실에서 청년의 지방행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이상적 청년상의 지속적인 지방행을 통해 청년층의 지방행을 보다 독려하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성의 표상을 갖춘 청년들은 대개 청년층의 선망 대상으로 형상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청년 이상화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국가적 이상에 맞닿아 있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유토피아를 제시한 바 있다.¹¹⁾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이상을 실현할 주체를 두고, 현대성을 표상하는 이상적 청년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역점 사업에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이상화로 동일한 서사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김정은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로 결집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현대적 표상을 한 청년들에 대한 선망은 청년들에게 동일 환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서사적 경험의 공유도 가능해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김정은 정권은 이상적 청년상을 통해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동 참여를 강요하며, 현대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선취하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유사한 서사적 경험을 공유토록 한다. 이로써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전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세대를 하나로 결

11) 김정은, 『신년사 주체 102(2013)년 1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3 참조.

집시키려 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미디어정치적 효력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본고는 부정적인 편이라고 전망한다.

사실상 서사에서 북한 청년의 갈등이나 현실 문제는 모두 은폐되고 정권이 요구하는 메시지와 주제 의식만 강조 및 강요하는 이들 서사에서 아무래도 공감 요소나 흥밋거리를 찾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적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서사적 파급력 또한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이 이미 불법으로 유입한 자본주의 사회의 흥미 위주의 서사를 접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앞서 언급한 이들 서사에 담긴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서사적 경험의 공유 그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3-2. 청년 정체성의 변화와 서사적 대응

북한 문학예술 작품에서 북한 사회에 내재하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내포한 현실을 파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내부 검열에 의하여 갈등이나 문제를 내포한 현실은 은폐되고 당의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서사에서 무언가 낯선 부분, 또는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지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문제적 인물'¹²⁾이나 개연성의 부재로 생겨난 '서사

12) 서곡숙은 북한영화 〈우리 집 문제〉 시리즈의 주인공을 문제적 인물로 개인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로 논의하고 이에 적대지는 긍정적 인물로서 집단의 규범을 대변하는 자로 정리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북한 문학예술에서 표현하는 긍정형 인물과는 다른 개인적·입체적·부정형 인물의 성격으로 대변되는 인물을 '문제적 인물'로 호명한다.; 서곡숙, 『북한 대중영화의 갈등 연구: 〈우리 삼촌집 문제〉, 〈우리 누이집 문제〉, 〈우리 사둔집 문제〉의 비판 장면과 반성 장면에서 드러나는 인물·공간·발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229-257쪽 참고.

적 결절'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의 현실 문제를 가늠하고,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서사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문제적 인물을 확인한다. 대표적 예로 <소학교의 운동장>의 용남 어머니와 <표창>의 강리창이 있다. 이들을 통해 북한 청년들이 개인적 안위에 대한 고민과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 안위에 대한 고민과 사적 욕망의 추구하는 인물을 다룬 것은 김정은 시대 서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니다. 사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던 등장인물이 궁극에 가서 혁명 세대나 당의 참된 일꾼, 성실한 동료들을 통해 감화되는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은 이전 시대들에도 존재해왔다. 따라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서사물에서 대개 이러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고민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있다.



<소학교의 운동장>의 용남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축구를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인물로, “축구를 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럴 바엔 차라리 공부나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

러한 그녀의 대사에서는 육체적 고생을 하며 재능을 육성할지라도 특별하고 특출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고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고민이 내재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의 인물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에 그 시간에 학문 연마를 한다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장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녀는 개인이 지닌 재능이나 능력을 두고 “공적 자산이 아닌 사적 자산”¹³⁾으로 이해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써 그녀는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하는 집단주의적 프레임보다는 개인적 안위를 더 먼저 고민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표창〉은 강리창이라는 한 청년의 사회적 진출 욕망을 비교적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리창은 삼대 째 수리공인 자신의 삶에 불만을 품고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즉 그는 공장이 아닌 연구소에서 청년 인텔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길 꿈꾼다.

그는 연인이 선물로 준 담배를 오히려 선임에게 자신이 주는 선물로

13)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일인문학』 60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4, 230쪽.

내어 놓으며 자신을 더 높은 자리로 추천해달라며 부탁하는 등 청년 인텔리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누구든 칭찬할 수밖에 없는 다방면의 능력형 인간으로 형상화된다.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때문에 그는 경쟁주의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누구보다도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과욕을 부리다가 업무적 실수를 저지른다. 이후 강리창의 연인인 아버지가 양심선언을 하며 그의 실수가 폭로될 처지에 놓인다. 이에 그는 연인에게 찾아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이제 내 꿈은 끝이다. 요즘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있나?”면서 솔직하게 살아가며 책임질 줄 아는 사는 연인의 아버지의 삶을 힐난하며 서슴지 않고 화를 낸다.

그는 사회적 진출에 대하여 끊임없이 열망하는 인물로 서사 내내 형상화되지만, 사실상 서사의 말미에는 연인의 아버지에게 감화되고 만다. 결국 스스로 양심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당의 표창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삼대 재 수리공의 삶을 지켜나가며 당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서사는 마무리 된다.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는 개인의 사적 욕망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관찰시키지 못하는 한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결국 사적 욕망이란 것은 공적 윤리에 쉽사리 포섭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고는 이 서사를 청년층에 배태될지도 모르는 사적 욕망을 최대한 지연하고 막아보려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해하였다.

위의 두 인물에 나오는 공통된 특성을 정리하면 가령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층에 사회적 진출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청년들에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또한 진로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당이 지정하는 대로 고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개인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진출을 꿈꿀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 유추될 수 있다. 즉 이로부터 사회 진출에 대한 개인적 고민, 사회적 구조에서의 계층 이동에 대한 사적 욕망 등이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음은 청년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것이 개연성의 부재로 인한 서사적 결절로 나타난 경우와 이에 대한 서사적 대응을 확인한다.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2013년에는 <꿈을 속삭이는 소리>와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TV드라마를 통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동이 주인공의 보조인물로 아동의 재능을 교육하는 유치원 교원과 아동들의 부모 등이 청년들로 형상화되었다. 이처럼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들 TV드라마에서는 부모보다는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가 오히려 보다 밀착된다는 특징을 보인다.¹⁴⁾ 따라서 이 시기 TV드라마에 형상화된 청년들은 사회와 아동을 연계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무른다.

사실 이 시기는 김정은 정권 교체 직후였으므로 체제 안착과 체제 안정을 도모해야 했다. 때문에 보다 젊고 낙관적인 미래 담론을 북한사회에 주조해야만 했다. 따라서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체제 안정화를 위해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아동이나 과거 세대 및 기성세대의 노고에 대한 인정이 더 우선적인 시기였다. 즉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은 구세대와 미래세대의 정치적 구도 사이에 끼인 '사이세대'¹⁵⁾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것이 서사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14) 안지영, 『김정은 시기 개별화된 아동·청소년 형상: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자료』, 통일부, 2015, 238쪽.

15) 김성경, 『북한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세대”의 혼정적 정체성』, 『통일연구』 19권 1호,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5 참고; 황규성, 『북한의 청년 사회적 공간과 주변 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2016, 154쪽.

이는 〈소년탐구자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년탐구자들〉의 청년들은 ‘음파 탐지 기술’이라는 상상의 과학 기술을 완성하여 항일혁명의 역사를 소환한다. 따라서 이 서사에서 과학은 미래지향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와 연결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는 항일혁명의 과거를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이 구세대의 과거 희생적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본받기를 바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즉 구세대와 현실의 청년세대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음을 추측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세대적 괴리감을 이야기적 ‘낭만성’을 통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어떠한 개연성도 없이 억지로 과거와 미래를 봉합하다보니 서사적 결절이 형성된다. 이러한 서사적 결절은 세대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김정은 집권 초기 청년들에게 서사를 통하여 미래와 과거를 매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부여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해준다.

주목할 것은 〈소년탐구자들〉을 통해 청년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과거의 혁명 전통이나 구세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기를 요구하는 정치적 의도가 확인되면서도 정반대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성을 추구하는 양가적 마음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체성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이 형상화된 TV 서사물을 보면 대개 과거와 미래, 헌신과 합리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공적 윤리와 사적 욕망 등의 대립적이고 양가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청년 현실이 파악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적 정체성에서 그들은 쉽게 어느 한쪽으로 귀속되기를 유보하며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다보니 서사물에서 ‘문제적 인간’의 등장, ‘서사

적 결절' 등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김정은 시대만 온전한 청년의 특징으로 볼 순 없지만 여기에는 변화된 현실 조건 앞에서 보다 대립항의 정체성들이 늘어나며, 양가적 정체성의 증가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혼돈을 주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방영한 TV드라마 〈귀중히 여기라〉의 청년 주인공은 이러한 대립적이고 양가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청년 정체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예외적 서사를 보인다. 이 서사의 경우 주인공이 지향하는 삶이나 성격이 잘 읽히지 않는다.

주인공은 해군대학 전 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청년으로 휴가 기간 가정을 이룰 것을 명받고 휴가를 나오게 된다. 주인공은 휴가를 나오자마자 해군대 시절 비오는 날 자신에게 '전지등(손전등)'을 빌려준 이름 모르는 동무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간다. 그러나 그 동무는 얼마 전 해상전투에서 전사하였음만 듣고 오게 된다.

주인공은 이윽고 평양으로 이사한 부모의 집을 찾아 간다. 그러던 중에 그는 길을 몰라 젊은 여성에게 길을 묻는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길을 가르쳐주던 그녀의 우산을 빌리게 되며 그녀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며칠 후 그녀에게 우산을 돌려주러 갔으면서

도 그녀를 만나지 않고 그저 모르는 사람에게 우산만 전하고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애에 별로 무심하여 선을 보라는 부모의 권유는 흘려듣고 해상전투에서 전사했다던 동무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동무가 살던 시골로 간 주인공은 그의 어머니에게 믿음직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채워주려는 여러 일을 돕기 시작한다. 때마침 그 지역 수질 검사를 하러 온 여성 과학자 즉 일전에 이미 평양에서 만났던 그녀와 조우하기도 한다. 주인공을 군에서 보낸 청년으로 알았던 동무의 어머니는 이후 주인공이 그저 전지등을 빌려준 인연으로 자신을 찾아와 아들 노릇을 하며 도움을 주려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에 감동한다. 그리고 이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지만 원수님 얘기에 하나가 된다.”며,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신 원수님께 감사”하라며 “사람들이여 인간사 랑의 대화원 이 제도를 귀중히 여기라” 라는 멘트와 함께 서사는 끝이 난다. 따라서 이 서사는 “전지등”과 “우산” 등 사소한 물품을 빌려주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고, 이토록 사소한 인연에도 인간의 따뜻한 정을 지켜내며 김정은 체제로의 결속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앞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요약한 바, 주인공인 그가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서사 내에서 오히려 부유하거나 걸도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가정을 이뤄야 하는 당의 지도와 선을 보라는 부모의 조언에도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인물이며 또 우산을 빌려준 그녀에게 우산을 직접 돌려주러 가고도 그녀를 찾지 않고 주변인에게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오히려 우연한 기회로 지방에서 그녀와 조우하게 되는 장면에서도 그는 왜 자신이 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지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의 행동들은 개인적 관계맺음에 있어 그다지 능동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식된다. 따라서 그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그에 대한 의지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오히려 전지등을 한번 빌려준 동무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하여 그는 휴가기간을 소진하며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부대를 찾아가게 되며 심지어 그가 전사자임을 알게 된 후 얼마 안 되는 휴가 기간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른다. 결국 이 서사에서 주인공은 오로지 당에 헌신하여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작업에 한해서만 움직인다. 이로써 이 서사는 사건은 없고 오히려 사소한 인연을 귀중히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집단주의 사고를 설파하는 주제만 부각될 뿐이다. 결국 체제로의 과도한 결속을 강요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전한다.

그러다보니 〈귀중히 여기라〉의 주인공 청년은 청년 주인공으로 내세워졌을 뿐, 청년의 주관적 감성이나 갈등을 지닌 입체적 성격이 묘사되지 않는다. 오로지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바에만 반응하는 평면적 인물일 뿐이다. 따라서 청년 주인공의 삶은 어느 하나 의미화 되지 않는다. 이는 양가적 정체성을 지닌 청년층의 고민을 오히려 외면하는 서사 전략으로 읽어낼 여지가 있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서사 내에서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그는 오로지 수동적 군중이 되어 서사 내에서 다양한 등장인물 곁을 부유하며 주변화될 뿐이다.

이처럼 청년 주인공의 주변화 경향은 청년의 양가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은폐하려는 서사적 전략일 수 있다. 즉 정체성의 변화를 지연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대로 양가적 정체성에 대한 혼돈 앞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 즉 선택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는 청년 현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이후 앞으로 등장할 북한의 청년 형상 서시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적

차원에서, 김정은 시대 서사물에서는 청년들을 최대한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고 있으나 철저하게 수동적인 균중으로의 정체성을 부여 받으며 주변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청년중시 사상 및 정책을 홍보 및 선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식매체 조선중앙TV에 김정은 정권이 이상화한 청년형상이 반복 노출되고 있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서사물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기획한 청년 형상화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김정은 시대의 TV 서사물에는 김정은 시대가 전유했거나 전유하려고 하는 시대적 특성이나 당대성이 이상적 청년상에 개입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역점 사업에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이상화 및 현대성의 표상과 선망 대상으로의 청년 이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에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동 참여를 강요하며, 현대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이상화 작업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선취하도록 만들면서 이로써 유사한 서사적 경험을 공유토록 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전형을 만들고 청년세대를 하나로 결집시키려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는 서사에 등장하는 '문제적 인물'이나 개연성의 부재로 생겨난 '서사적 결절'의 흔적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의 현실 문제를 가늠하고,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서사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서사 속 문제적 인물들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존재하는 개인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서사에 나타난 사회 진출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나 사회적 구조에서의 계층 이동에 대한 사적 욕망을 김정은 시대의 청년의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서사적 결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정체성의 현실 문제와 이에 대한 서사 전략으로의 청년 주인공의 주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이 형상화된 TV 서사물에는 과거와 미래, 헌신과 합리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공적 윤리와 사적 욕망 등의 대립적이고 양가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청년 현실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적 정체성에서 그들은 쉽게 어느 한쪽으로 귀속되기를 유보하고 있음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서사에 드러난 '문제적 인간' '서사적 결절' 등을 통해 변화된 현실 조건 앞에서 보다 청년층에 대립항의 정체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가적 정체성의 증가야말로 청년들에게 심리적 혼돈을 주고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 등장한 서사물에서는 청년 주인공이 철저하게 수동적인 균중으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로써 주변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의 양가적 정체성 그 자체를 외면하는 서사 전략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김정은 정권이 이전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보다 청년중시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이를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 변화에 다름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체제 결속을 위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청년층의 변화를 최대한 지연하려는 정치적 자구책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정은, 『신년사: 주체 105(2016)년 1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_____, 『신년사: 주체 102(2013)년 1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리석규 외, 『방송리론』, 평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1985.
립향, 『청년들은 새 영화를 기다린다』, 『조선예술』 2016년 6월호, 조선예술문학출판사, 2016.
사회과학원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장명철, 『영화화면의 효과적인 리용: 선군시대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4호, 조선예술문학출판사, 2002.
『로동신문』, 2014년 5월 5일.
『로동신문』, 2012년 9월 7일.

2. 논문과 단행본

-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일인문학』 60호,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4, 203-239쪽.
_____,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딜레마』, 『통일인문학』 64호,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5, 119-160쪽.
_____, 『김정은 체제 북한 시에 드러난 ‘사회주의문명국’의 함의』, 『인문학논총』 47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145-174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세 세대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8.
김미진, 『김정은 시대 북한 경희극 분석』, 『동아연구』 34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39-72쪽.
김선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19권 1호, 연세대 북한연구원, 2015, 5-39쪽.
김종수, 『북한청년동맹 연구』, 한올아카데미, 2008.
김철관, 『영상이미지와 문화』, 배재대학교출판부, 2009.
박종철 외,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통일연구원, 2011.
서곡숙, 『북한 대중영화의 갈등 연구: 〈우리 삼촌집 문제〉, 〈우리 누이집 문제〉, 〈우리 사돈집 문제〉의 비판 장면과 반성 장면에서 드러나는 인물·공간·발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229-257쪽.

-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한국문화기술』 19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5, 63-98쪽.
- 안지영, 「김정은 시기 개별화된 아동·청소년 형상: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2015 자료』, 통일부, 2015.
- 전영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354-380쪽.
-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 33-77쪽.
- 조정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2013.
- 황규성, 「북한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6, 153-181쪽.

Abstract

The Embodiment of the Youth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Chosun Central Television
- Centering on North Korea's Chosun Central TV since Kim Jong-un seized Power in North Korea

Kang, Min-Jung(Dankook University)

The youth-focused policy of Kim Jong-Un's government is distinctive, as it is publicized and emphasized more actively than that of the previous Kim Jong-Un government. This government is publicizing youth-focused theory and policy extensively through the media and frequently propagating political performances that reflect it. On Chosun Central TV, which is North Korea's public media, propagation broadcasts are employed for the active reflection of "youth-focused thought," and coverage on youth policy has recently increased.

In addition, the form of "youth" that was recently idealized by the Kim Jong-Un government is repeatedly evident in the broadcasted contents. This thesis focused on the idealized youth model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relation to contents broadcasted by the Kim Jong-Un government, which can be seen as a general narrative trend in Chosun Central TV programs broadcasted after Kim Jong-Un seized power in North Korea.

Therefore, the Kim Jong-Un government is aware of the subject youth and shows a tendency to try to change the narrative form along these 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nts, the young generation is represented on the surface of the narration by modern images through the symbols of scientific technology, apartments, cultural facilities, however, the deep layer of narration plainly shows a political intention to embrace the desire unconditionally as a public ethics despite the appearance of private desire. In other words, the subject youth tends to be surrounded in the narration of the Kim Jong-Un era.

Therefore, the Kim Jong-Un government extensively represents the young generation as social subjects through the media according to the youth-focusing policy, but young people themselves do not become authentic subjects through this

narration. This represents a problem for representation. Discussing the phenomenon whereby the ideal youth model recently set up by the Kim Jong-Un government is repeatedly represented on TV media through narration, this thesis considers that this phenomenon disproves the view current political compulsion toward private desire germinated in the young North Korean generation by the Kim Jong-un government should be embraced by public ethics. It can be argued that the real conditions of the young generation are different, reflecting worries about their change in identif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n other words, it implies that the Kim Jong-Un government is using changes in the young generation as the appearance of private desire originating from indications of social class differentiation, and with the generational model the government wants to delay the social change as much as possible.

So, the calling for youth as a social subject on TV media in North Korea is just a surface phenomen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tart of this social shift. This year, an exceptional film from North Korea depicting a young man who realizes his individual dreams and ideals by transcending the fate determined by the communist party was released on TV and mass media. This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concern about how Kim Jong-Un's government should include the desires of the young generation in particular.

(Key Words: Kim Jong-Un's government, youth policy, youth-focused thought, Chosun Central TV, media politics, ideal youth model, narrative, young generation, TV drama)

논문투고일 : 2017년 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2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2월 15일

계재확정일 : 2017년 2월 15일